

한라시론



문 영 인
서제주키위연구회

봄이 되면 들과 산에 가득한 나무와 풀이 꽃을 피워 자태를 뽐낸다. 사람들은 꽃구경을 가기도 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지만 식물이 꽃을 피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종족의 보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꽃잎의 화려한 색과 향기 그리고 맛있는 꿀은 꽃가루를 암꽃으로 옮겨다 줄 곤충을 유인하고 먹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꽃가루를 암꽃으로 성공적으로 이동시켜 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에는 충매, 풍매, 수매가 있으며 전체 식물의 2/3는 충매에 의해

우리가 보호해야할 자원 ‘꿀벌’

수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충매(蟲媒)란 벌, 나비, 파리 등의 곤충에 의하여 수분(受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꿀벌이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인공적으로 사양하고 있는 꿀벌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상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원인은 겨울철 추위로 벌통 안에서 얼어 죽는 월동기 폐사와 질병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에 대한 내성으로 방제 효과가 낮아져서 폐사하는 경우 그리고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와는 다르게 꿀을 따라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미아 벌이 대규모로 발생해 빈 벌통이 되는 원인을 전자파의 피해로

보고 있기도 하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가온 인류와 동식물의 생존에 대한 재앙으로 보이며, 그 원인을 구명하고 과학적인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과거에 꿀벌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기 위해 증식 관리했고 유채꽃이 제주의 관광 상품인 시절에는 육지부에서 많은 양봉업자들이 벌통을 싣고 들어와 꿀을 따가기도 했다. 지금은 꿀이 생산 외에 농작물의 수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주로 딸기농장에서 이용하고 있다. 키위는 암, 수나무가 따로 있어서 대부분 인공수분 방법으로 꽃가루를 채취하거나 수입한 꽃가루를 도구를 이용해 암꽃에 뿌려주면서 재배해 왔다. 앞으로 키위 농사에서도 꿀벌을 이용한

수분으로 대체해 인공수분에 따르는 비용을 줄여 보고자 구상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농가에서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군(群)당 가격이 너무 높아지거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농업인들도 꿀벌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됐다. 특히 농약을 선택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이 꿀벌, 누에, 조류 등 생물의 환경에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농약에 대한 금지행위 그림문자를 표시하고 있는데, 농약 봉지를 잘 살펴보면 오른쪽 위에 꿀벌 그림을 그려 넣어서 ‘꿀벌 독성’ 농약임을 표시하고 있으니 작물에 꽃이 피어 있을 때에는 이런 농약의 사용에 주의해 꿀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사설

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위해 공조 강화해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는 서귀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다.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 수차례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과의 접근성이 취약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서귀포시에는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이 있다. 여기서는 소액 심판사건과 협의이혼, 등기업무만 처리한다. 시민들이 형사합의와 행정소송 등을 하려면 제주지 법원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는 관할 면적, 인구 수, 사건 수를 고려하면 서귀포 지원 설치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서귀포지원이 신설되면 제주 지법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제주지법이 그동안 처

리하던 사건의 27%를 서귀포지 원이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지원이 신설되려면 더 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그 제 기간담회를 통해 서귀포지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고무적이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충분히 고려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 는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들이 공조해 절충해야 한다. 국 회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서귀 포지원 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파해야 한다.

제주 이전 공공기관 유치 사활 걸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24개 제주 이전 추진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유치기관 10개를 선정했다. 집중 유치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이다. 대상 기관은 지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올해 대상기관 선정기준과 임지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하고, 하반기에 임대기관을 우선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는 2019년 연구용역을 현재 상황에 맞게 현행화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 당위성 논리를 보장한다는 전략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했다. ‘알짜배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셈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이 대부분 서로 겹치면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당장 한국공항공사는 충북과 광주시가 유치 의사를 밝혔고, 한국마사회도 전북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의 강력 한 의지 표명과 더불어 논리 개발을 통해 목표한 기관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센티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만의 차별화 전략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초 당적인 정치권의 지원까지 있어야 한다. 민선 8기 성장기업 20개 육성·유치에 못지않은 과급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편집국 25시

제주형 15분 도시, 도민 개념 이해부터...



이 대 윤
정치부 차장
lty9456@halla.com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15분 도시 정책은 모든 지역 간의 평등과 근접성,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속도와 성장을 중시하는 ‘시설 중심 도시’에서 사회적 연결이 가능한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도정과 도민이

생각하는 15분 도시 조성의 개념이 달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해 보인다.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도는 15분 도시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제주 지역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부분의 도민들은 15분 도시가 조성될 경우 15분 거리 내에 모든 시설이 들어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실현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을 다녀왔는데 지하철 역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설치돼 있었다. 광고에는 ‘부산이 가장 먼저 15분 생활도시로 모드 전환 합니다’ 등의 문구가 게재돼 있었다.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먼저보자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실패 없는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

뉴스-in

“무연고자 마지막 길 쓸쓸하지 않도록”

원스톱 장례 100여 명 지원

○...제주시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무연고 사망자 원스톱 장례’를 통해 지금까지 150명 가까운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행정이 나서 무연고자 사망 후 장례 대행업체 선정, 화장, 사망신고까지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곳은 제주시가 처음으로 ‘원스톱 장례’ 첫해인 2021년 44명, 2022년 83명에 이어 올해는 3월 현재 21명의 장례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 제주시의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홀로 떠나는 고인의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 전선회기자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짙은 안개가 잦은 농무기를 맞아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 해상 안개는 목표물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저시정을 동반, 농무기 중 서귀포해경 관할 내 저시정은 최근 3년 평균 6회 설정됐고 올해도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예보 기간 중 연안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옥외 전광판,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등 홍보와 안전제도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연안에서 활동 시에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 백금탁기자

부 고

이현우(덕흥한의원) 어머니 전주 이씨 덕흥(향년 95세)께서 서기 2023년 3월 15일 08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3월 16일(목요일)
▶발인일시: 2023년 3월 17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S중앙병원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봉성가족묘지

아 들 이 현 우 며느리 임 순 임
손 자 이 승 호 손 부 박 성 하
승 석 유 경 남

※ 연락처 : 이현우 010-3011-8704
임순임 010-3870-8704
※ 마음 전할 곳 : 새마을금고 6609-09-001173-8(이현우)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 하여 임의로 개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일련번호	분묘 소재지	지목	가수	비고
1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515-1	임	1	

2. 개장사유: 조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및 하나로마트 신축공사예정.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불안기간
○ 안치장소: 제주시 516로 2810-31 (영지공원 분묘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분묘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조천농협협동조합 기획과 ☎ 064*780*2264
○ 문의처: 조천농협협동조합 기획과 ☎ 064*780*2264
2023년 3월 16일
위 공고인: 조천농협협동조합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2월 22일 주주총회에서 해산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3년 5월 17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의됨을 상법 제535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올레렌트카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582(이호이동)
정산인 남 광 호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항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중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웅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C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도정소식



*농민수당 신청-3.31.까지 접수.(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평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710-4092-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23년 4월 수강생 접수

- 접수기간: 2023. 3. 15. ~ 3. 23.
※ 문화교육 3월15일~ / 전문교육 3월16일~ / 커피교육 3월17일~ (오전9시부터 선착순)
- 접수대상: 만 18세이상 대상 제주도민 477명 (과정별 12-30명)
- 교육과정: 생활속의 화학, 사군자(초급), 드론코딩 & 방과후 지도사, 캘리그래피 자격증, 홈바런치 요리(주말), 바리스타 라떼아트 등 23개 과정
- 접수방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컴퓨터기초 교육-컴퓨터기초 교육 과정은 전화접수도 가능함
- 문 의: 전문교육 ☎064-710-4202, 4206 / 문화교육 ☎064-710-4243, 4248



QR코드 스캔 시
‘수강신청’
화면으로 이동.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의견제출 방법
- 현장 제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도 공항확충지원과
- 온라인 제출: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 우편 제출: 제주시 문연로 30, 공항확충지원과
- 문의처: 도 공항확충지원과 (710-4841~4847, 4851~4854, 4741~4742)



QR코드 스캔 시
‘수강신청’
화면으로 이동.